



디지털 플로리스트리 조각가 브랜디 웨딩거가 디자인한

1931 골든 플라워

리베르소의 디자인을 기념하기 위한 예거 르쿨트르 MADE OF MAKERS 프로그램의

새로운 예술 협업

예거 르쿨트르는 문화의 세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Made of Maker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D 디지털 아트, 조각 및 플라워 작업으로 인정받은 로스앤젤레스 기반의 멀티미디어 아티스트인 브랜디 웨딩거(Brendi Wedinger)와의 새로운 협업을 발표합니다.

워치메이킹과 예술 사이의 교류 확장

Made of Makers 는 워치메이킹 외 분야의 아티스트와 디자이너, 장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시계 제작과 예술 간의 교류를 확대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랑 메종의 가치인 창의성과 전문성, 정확성을 핵심적으로 공유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소재와 매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예술적 표현을 탐구하는 아티스트에게 집중합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와 마찬가지로, 아티스트와 혁신가들은 그들의 창의적 토대이자 선구적인 작업을 위해 과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올해 예거 르쿨트르는 예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협업을 통해 현대 미술의 세계를 깊이 탐구합니다.

자연과 기술을 결합한 독특한 예술적 비전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브랜디는 멀티 아티스트이자 디자이너로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허무는 3차원 디지털 작품을 선보입니다. 생물 다양성, 지속 가능성 및 재생 그리고 꽃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바탕으로 자연에서 가장 큰 영감을 얻는 그녀는 다양한 요소를 결합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으면서 때로는 추상적이며 조각 작품처럼 느껴지는, 새롭고 초현실적인 시각적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브랜디 웨딩거의 예술적인 가상 세계와 그것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술적인 도구는 아티스트가 묘사하는 유기적인 세계와 대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통적인 장인 정신과의 깊은 친밀감이 그



창조적인 과정을 뒷받침합니다. “처음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품을 디자인하기보다는, 항상 기술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꽃잎과 같이 더 큰 3차원 요소를 손으로 조각하고, 섬세한 디테일을 손으로 그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단계를 완료하면 텍스처, 투명도 및 레이어링 효과를 위해 많은 수학 방정식을 사용합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합니다. “디지털 매체에 이끌린 이유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더욱 폭넓은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 작품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다가보다는 더욱 표현적인 방식으로 자연에 대한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발레드주의 식물군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3D 작품

예거 르쿨트르는 Made of Makers 협업과 관련하여 아티스트에게 독창적인 작품을 의뢰하며, 그들만의 특별한 수공예 기술을 통해 매종의 관심 주제를 표현하도록 지원합니다. 자연 세계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브랜드 웨딩거이기에, 새로운 작품의 주제가 예거 르쿨트르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자연 중에서도 특히 꽃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Made of Makers 협업에 참여하는 모든 아티스트와 마찬가지로 브랜드 웨딩거는 의뢰 받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거 르쿨트르가 위치한 발레드주에서 시간을 보내며 위치메이킹 기술을 발견하고, 매뉴팩처를 둘러싼 자연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웨딩거는 이번 방문의 모든 요소를 결합하여 세 가지 초현실적인 플라워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들판의 야생화부터 놀랍도록 복잡한 시계 부품의 미세한 크기, 모든 매뉴팩처 장인의 인내심과 기술력에 이르기까지, 이번 방문에 관한 모든 것은 번개처럼 빠른 현대 생활과는 거리가 먼 낭만적인 환상의 세계와 같았습니다.”라고 브랜드 웨딩거는 말합니다. “계곡의 자연미 외에도 하이 컴플리케이션 시계와 그 시계에서 발견한 독특한 디테일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꽃과 시계 모두에서 찾을 수 있는 아름다움과 엄청난 디테일을 시계처럼 정교하고 유일무이한 꽃에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세 가지 작품은 자연에 존재하는 특정 종이 아니라, 변화하는 계절에 따라 발레드주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꽃에 찬사를 보냅니다. “사람들이 각 작품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요소가 자연의 꽃에서 발견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꽃들의 초현실적인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디테일을 리믹스하고 레이어링했습니다.”라고 브랜드 웨딩거는 설명합니다. 이번 작품의 또 다른 중요 요소는 꽃이 예거



르쿨트르에서 사용되는 진귀한 메탈 중 하나로 디지털 방식으로 렌더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폴리싱된 골드에 떨어진 빛에 의한 그림자와 반사가 초현실적인 환상을 만들어내어, 초현실적인 효과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자연의 유기적인 부드러움과 금속의 차가운 견고함, 디지털과 현실, 일시적인 것과 정적인 것 사이의 대조적인 개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미묘한 긴장감과 흥미를 더해 각 작품의 감정적 영향을 높여줍니다.

자연에서 예술로... 그리고 다시 자연으로

식물학 전통에 따라, 꽃에는 각각 공식 라틴어명과 영어명이 붙여졌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리베르소의 탄생 연도에 경의를 표하는 공식 이름을 각 꽃에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포피, 알파인 파스크, 물매화의 요소를 결합하여 1931 골든 포피(Golden Poppy)로 알려진 *플로스 몬티스 플루이트*(Flower of the Mountain Flows)를 만들었습니다. 수선화, 레드 햄프 넬, 레이트 스파이더 오키드를 혼합하여 1931 골든 오키드(Golden Orchid)로 알려진 *Gemma Vallis*(발레드주의 보석)가 탄생했습니다. 세 번째 꽃의 경우, 워터 민트, 핀쿠션 플라워, 알파인 엉겅퀴를 결합하여 1931 골든 시슬(Golden Thistle)로 알려진 *Rhapsodia Petalorum Alpinorum*(알파인 꽃잎의 랩소디)을 만들었습니다.

실제와 초현실 사이의 경계를 더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 예거 르쿨트르는 프랑스 식물 육종가에게 1931 골든 오키드의 형태와 매우 유사한 꽃을 찾아 메종만을 위한 하이브리드 품종을 재배하도록 의뢰했습니다. 1931 화이트 오키드(White Orchid)로 명명된 이 식물은 브랜디 웨딩거의 예술 작품을 자연스럽게 물리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리적이면서 가상의 형태를 띤 꽃은 예거 르쿨트르의 시각적 아이덴티티의 일부가 되어 향후 다양한 이니셔티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ade of Makers 소개

Made of Makers 프로그램은 워치메이킹 이외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 디자이너 및 장인 커뮤니티를 한자리에 모읍니다. 시계 제작과 예술 사이에 존재하는 교류를 확장하는 이 프로그램은 항상 그랑 메종을 정의하는 핵심 원칙인 창의성과 전문성, 정밀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프로그램은 그랑 메종의 가치를 공유하며 종종 예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소재와 매체를 통해 새로운 표현 형태를 탐구하는 열정적이고 숙련된 아티스트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매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되는 새로운 작품들은 예거 르쿨트르가 전 세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선정된 주제를 확대함으로써,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예술, 공예, 디자인에 대한 더욱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브랜드 웨딩거 소개

브랜드 웨딩거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멀티 아티스트이자 디자이너로 3D 디지털 아트 및 조각, 플라워 작업을 통해 작품을 선보입니다. 아티스트의 작업은 촉각과 감성을 통해 감각을 사로잡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현실과 환상 사이의 추상적인 중간 지점에 자리합니다. 활기차고 상상력이 풍부한 작품을 통해, 새롭고 초현실적인 시각 현실로 리믹스된 인상적인 자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웨딩거의 작품은 *뷰포인트(Viewpoint)*, *데진(dezeen)*, *서피스(Surface)*, *디자인붐(designboom)* 및 *노션(Notion)* 매거진을 포함한 수많은 인쇄물 및 온라인 출판물에 실렸습니다. 브랜드 웨딩거는 가구 디자인 스튜디오 프라울(Prowl)과 협업한 2022 알코바/밀라노 디자인 위크(Alcova/Milan Design Week 2022), 호주 시드니에서 2022년에 개최된 새틀라이트(Satellite) 미술 전시회, 벨기에 겐트(Ghent)에서 2020년에 개최된 겐트 디자인 뮤지엄 전시 '클뢰레크 반 아이크의 디자인 컬러(Kleureyck. Van Eyck's Colours in Design)' 등 전 세계에서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왔으며 430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년 동안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jaeger-lecoultre.com